

한국인 EFL 성인 고급 학습자들의 담화 맥락에서의 대명사 이해*

김민주 · 안의진 · 송현주**

(연세대학교)

Min-Ju Kim, Eui-jeen Ahn and Hyun-joo Song (2015), Adult Korean EFL learners' Pronoun Interpretation in Discourse Context.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2(3), 73-92. The current research examined whether Korean advanced EFL learners understand pronouns in the same manner as native speakers of English do.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ead 4-sentence stories and to rate how much the last sentence made sense related to the previous sentences. The stories differed on (1) whether the subject of the last sentence continued the subject of the previous sentences and (2) whether the subject was mentioned as a pronoun.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EFL learners showed similar patterns of linguistic intuition to those of native English speakers, preferring pronouns for continued subjects and nouns for shifted subject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lies on applying the discourse comprehension of native speakers from previous studies to EFL learners', and on building the basis for on-line measures such as eye-tracking or reaction-time methods to discover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intuition of EFL learners. (Yonsei University)

Key Words: pronoun interpretation, discourse processing, foreign language learning, anaphora resolution, discourse prominence, centering theory

1. 서론

문장과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각 문장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텍스트를 읽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등 일상의 담화 처리

* 이 연구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09-361-A00027)과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사업(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2014-22-0118).

** 교신저자(C.A.). 본 연구에 사용된 영어 문장자극 교정 과정을 도와주신 연세대학교 Duane Henning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들 간의 관계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주제(topic)나 초점(focus)이 문장들 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독자들은 이야기 속의 각 문장 내에서 언급되는 인물들 중 어느 인물이 문장의 초점인지를 파악하면서 문장 간의 연결을 이해하고,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된다(Webber, 1979).

이런 담화 내 언급된 개체(discourse entity)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단서들로는 문법적 역할(grammatical role, Grosz, Joshi and Weinstein, 1995) 또는 표면적 순서(surface order, Brennan, Friedman and Pollard, 1987; Gernsbacher and Hargreaves, 1988)와 같은 단서들이 있다. 언어 산출 과정에서 주어 자리에 또는 문장의 초두에 언급된 개체는 담화 내에서 중요한 개체로 표상되며 담화특출성이 높다(Discourse Prominence Theory, Gordon and Hendrick, 1997, 1998). 특히, 문장의 주어는 문장의 동작의 주체가 되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대부분의 언어에서 문장 어순 상 초두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이전 문장의 주어로 언급된 담화 상 중요한 개체가 다시 다음 문장에서 언급될 때는 대명사와 같은 애매한 지시어로 언급하곤 한다(Brennan, 1995). 대명사는 담화 맥락을 참조해야 그 의미가 결정되는 지시어(*mot-vide*,¹⁾ Gernsbacher, 1989)이며, 담화의 맥락에 기반하여 의미가 생성된다(Prince, 1981). 따라서 모호한 대명사로 표현된 개체는 문장들 간의 담화 표지로 작용하게 되며, 이렇게 애매한 대명사가 담화 맥락에서 더 우세하고 특출한 대상을 지시할 때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계산 이론들의 제안들 과도 일치한다(Gordon, Groze and Gilliom, 1993; Gordon and Hendrik, 1997, 1998).

이러한 산출 과정에서의 규칙성은 이해 처리 과정에서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문장 간의 주어가 연속될 것을 기대하고, 연속되는 주어는 대명사로 언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이러한 기대에 일치되는 문장을 이러한 기대에 위배되는 문장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를 한다(Hudson-D'Zmura and Tanenhaus, 1998; Song and Fisher, 2005, 2007). 또한, 주어라는 동일한 문법적 역할에 대해서도 주어가 표현된 지시체의 형태(예, 대명사, 고유명사

1) 대명사는 서양의 많은 언어권에서 담화 맥락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English*, Song and Fisher, 2005; Wykes, 1983; *French*, Megherbi and Ehrlich, 2009), 담화 맥락에 의해 대명사의 모호성이 해결된다. 프랑스어 *mot-vide*는 직역하면 '비어있는 단어'로, 담화 맥락을 참조해야만 그 의미가 완성되는 지시어를 가리키는 표현이며 대명사도 여기에 해당된다(Gernsbacher, 1989).

구)에 따라 그 이해 양상이 달라진다(Gordon and Hendrik, 1997). 예를 들어, 반복되는 주어가 대명사로 언급될 때보다 고유명사의 형태 등 더 구체적인 지시 형태로 언급될 경우에는 이해 속도가 느려지기도 한다. 아래의 예시(Hudson-D'Zmura and Tanenhaus, 1998)를 살펴보자.

- (1) a. Jack_i apologized profusely to Josh_j. Jack/He_i had been rude to Josh yesterday.
 b. Jack_i apologized profusely to Josh_j. Josh/He_j had been offended by Jack's comment.

예시 (1a)와 (1b)의 첫 문장에는 모두 두 명의 등장인물 *Jack*과 *Josh*가 등장한다. 두 문장은 모두 *Jack*이 첫 문장의 주어로 쓰임으로서 *Jack*이 문장의 초점이 된다. 예시 (1a)의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이전 문장의 주어와 같은 인물이므로, 'He'라는 대명사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예시 (1b)의 경우, 문맥 상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앞 문장의 주어(*Jack*)가 아닌 목적어(*Josh*)를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자가 읽기시간 측정과제(self-paced reading time task)에서 이전 문장의 주어가 대명사 주어로 대체되었을 때보다 고유명사로 불필요하게 반복되었을 때 읽기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반복이름벌칙효과(repeated name penalty, Gordon et al., 1993)를 보인다. 즉, 앞 문장의 주어(*Jack*)가 예시 (1a)에서처럼 다음 문장에서도 주어로 이어지는 경우, 주어가 대명사로 표현되었을 때보다(예, He had been rude to Josh yesterday.) 주어의 공지시(coreference) 표현에 대하여 명사구가 반복될 때(예, Jack had been rude to Josh yesterday.) 읽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

이러한 반복이름벌칙효과는 앞 문장의 주어가 뒷 문장에서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라진다. 예시 (1a)에서처럼 앞 문장의 주어가 다음 문장에서 그대로 주어로 등장할 때는 주어가 대명사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예시 (1b)에서처럼 담화 초점이 앞 문장의 주어가 아닌 다른 대상(*Josh*, 목적어)으로 바뀔 경우에는 대명사(He)보다 고유명사(*Josh*)가 반복되는 것을 선호하는 직관적인 이해가 나타난다(Hudson-D'Zmura and Tanenhaus, 1998; Roberts, Gullberg and Indefrey, 2008).

이처럼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담화 맥락을 활용하여 대명사를 이해하는 데에 특정한 언어적 직관을 보인다. 이러한 언어적 직관은 영어권 만 3세 아동

들에게서도 나타나며, 미국의 만 3세 아동들은 이전 문장의 주어가 다음 문장에서도 계속 주어로 연속될 것이라는 주어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기대는 주어의 언급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Song and Fisher, 2005, 2007). Song and Fisher(2005)는 영어가 모국어인 만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듣고 따라 말하기 과제와 응시시간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다. 만 3세 아동들은 두세 개의 맥락 문장들과 주어 연속성 및 주어 언급 방식이 조작된 검사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들었고, 각 이야기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담화 특출성이 높도록 표현되었다. 그 결과, 만 3세 유아들은 듣고 따라 말하기 과제에서 이전 문장에서의 주어가 다음 문장에 연속되는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잘 따라했으며, 맥락 문장으로부터 검사 문장에서의 주어가 바뀌는 경우는, 두 등장인물의 언급 순서를 바꾸어서 언어적으로 산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Meet the toad and the crocodile. The toad went on vacation with the crocodile. And she swam in the sea with the crocodile.”처럼 ‘toad’가 주어인 맥락 문장들을 듣고 나서 “The crocodile walked along the beach with the toad.”라는 주어 불연속 조건의 검사 문장을 들은 경우, 영어 원어인 만 3세 유아들은 “The toad walked along the beach with the crocodile.”처럼 맥락 문장의 주어를 검사 문장의 주어로 바꾸어 따라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만 3세 유아들은 응시시간 이해 과제에서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대명사로 표현된 경우, 주어가 이전 문장에서 연속되지 않을 때보다 연속될 때 화면에 제시된 두 그림들 중 이야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더 오래 응시하였다. 따라서 만 3세 아이들은 언어적 산출 및 암묵적인 이해에서도 주어 연속성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어가 모국어인 만 2.5세 유아들도 조금 제한적이지만 이와 비슷한 이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and Fisher, 2007).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가 영어인 성인 및 아동이 보이는 담화처리 특성이 후천적으로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하는 국내 성인 고급 영어 학습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어가 모국어인 아닌 한국인 성인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은 영어의 채귀대명사(Kim, Montrul and Yoon, 2014), 관사(Baek, 2014) 또는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김수연, 안동환, 2014)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한국인 고급 영어 학습자의 담화 맥락상의 대명사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EFL 고급 영어 학습자들에게서도 영어 모국어 화자가 보이는 담화 구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영어 학습 능력을 어휘, 문법뿐만 아니라 담화처리라는 다른 수준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연구방법

2.1.1. 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1명의 한국인 대학생(여자 13명, 남자 8명, 평균 연령 22.52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학습자들이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영어 공인인증 성적(예, TOEIC, TEPS, TOEFL)을 본 실험 과정을 마치고 수집하였으며, 미국 대학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English SAT 읽기 영역의 빈칸 채우기 과제(sentence completion task) 형태의 간단한 어휘실력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영어 학습 경험(예: 영어권 국가 거주경험, 영어 교육 시작 나이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본 실험의 문장 판단 과제와 어휘 실력 평가 이후에 진행되었다.

2.1.2. 실험 자극 및 설계

실험에는 네 개의 영어 문장으로 구성된 16개의 이야기들이 사용되었다. 각 이야기의 네 문장 중 앞의 세 문장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에 대한 담화 맥락을 형성하는 맥락 문장으로 작용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실제 측정 및 분석이 이루어지는 검사 문장으로 사용되었다. 문장 자극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고유명사, 동물 이름, 또는 직업명이었다. 각 이야기 내에서의 성별 정보가 오염변인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주인공이 고유명사인 경우 두 주인공을 같은 성별로 제시(예, *Hank*와 *Jerry*)하고, 중성적인 동물이름(예, *the donkey*와 *kangaroo*) 및 직업명(예, *the carpenter*와 *Tom*)이 등장하는 경우 명사구를 반복하거나 같은 성별의 대명사(예, *he*와 *he*)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문장에서 같은 성별의 두 주인공(A, B)을 명사구의 형태(예, 단독 고유명사 또는 관사 + 동물 이름/직업명)로 소개하였으며, 이 때 두 주인

공의 언급 순서 외에는 오염변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병렬적인 구조로 소개하였다(예, Say hi to A and B).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인공 한 명(A)만이 이전 명사구가 반복된 형태의 주어로 등장하고 자동사를 사용하여 다른 주인공(B)은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이전 문장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등장한 주인공(A)의 담화특출성을 높여주었다(예, 명사구 반복 형태의 주어(A) + 자동사 + 목적어).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인공(A)가 항상 대명사 형태의 주어로 제시되었으며, 다른 주인공(B)은 타동사의 동작의 대상(피동작주)이 되었다(예, 연결어(Then)+대명사 형태의 주어(A) + 타동사 + 직접목적어(사물) + 명사구 반복 형태의 간접목적어(B)). 마지막 문장(검사 문장)은 세 번째 문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고, 주어가 이전 문장과 동일한 지 여부(주어 연속성: 주어 연속 조건 대 주어 불연속 조건)와 주어가 반복되는 명사구인지 대명사인지 여부(주어 언급 방식: 명사구 반복 조건 대 대명사 조건)에 따라 아래 예문 (2)~(5)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이 있었다(예, 반복명사구/대명사 형태의 주어(A/B) + 타동사 + 직접목적어(사물) + 전치사(to, onto, for, with)+ 반복명사구 형태의 간접목적어(B/A)). 각 문장의 단어 수는 각 문장 순서마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첫 번째 문장 평균 6.6 단어, 두 번째 문장 5.4 단어, 세 번째 문장 8.3 단어, 마지막 문장 7.1 단어). 이 때 문장에서 동사구의 종류에 따라 주어의 특출성이 영향을 받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인공의 행동을 구체화 시키는 전치사의 종류를 세 가지로 통제하고 균등하게 등장하도록 하였다(예, 총 16 문장에 대하여 각각 전치사 *for*가 5번, 전치사 *to* 또는 *onto*가 5번, 전치사 *with*가 6번 사용됨).

(2) 주어 연속-명사구 반복 조건

Say hi to the donkey and the kangaroo.

The donkey sliced oranges.

Then he peeled bananas for the kangaroo.

The donkey brought melons to the kangaroo.

(3) 주어 연속-대명사 조건

Say hi to the donkey and the kangaroo.

The donkey sliced oranges.

Then he peeled bananas for the kangaroo.

He brought melons to the kangaroo.

(4) 주어 불연속-명사구 반복 조건

Say hi to the donkey and the kangaroo.

The donkey sliced oranges.

Then he peeled bananas for the kangaroo.

The kangaroo brought melons to the donkey.

(5) 주어 불연속-대명사 조건

Say hi to the donkey and the kangaroo.

The donkey sliced oranges.

Then he peeled bananas for the kangaroo.

He brought melons to the donkey.

16개의 이야기들은 각각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각 그룹의 이야기들은 각 그룹이 네 가지 조건 모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다시 네 개의 설문조사 유형으로 조합되었고, 참가자들은 네 개의 설문조사 유형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random assignment)²⁾되었다. 16개의 검사 시행(test trials)들은 참가자들이 연구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32개의 가짜 시행들(fillers)사이에 섞여 제시되었으며, 검사 시행들만이 연구 분석에 활용되었다. 가짜 시행들은 진짜 시행에서 보고자 하는 변인들과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검사 시행에서는 담화 맥락의 행위자들이 사람 또는 동물인 주인공 두 명이었다면, 가짜 시행에서는 인격이 없는 주어(예, The restaurant, the demand for Korean teachers), 집단성을 띄는 복수 주어(예, The Johnsons family) 또는 전반적인 사실에 대한 기술(예, People, many students) 등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이야기 자극들은 영어 모국어 화자 집단을 대상으로 검증된 바 있는 Song and Fisher(2005, 2007)의 영어 문장 자극들을 응용하였으며 국내 영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영어 모국어 화자의 교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2.1.3. 실험절차

본 연구는 참가자들이 연구자로부터 받은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surveymonkey.co.kr)에 접속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우선 참가자들은 온라

2) 심리학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조건별로 할당할 때, 독립변인 이외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가자 내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험 참가자들을 각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하는 것을 무선허당(random assignment)라고 한다.

인화면 상에서 연구 참여 안내 및 동의 절차를 거쳤다. 각 실험 시행마다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네 문장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글을 읽는 속도로 읽고, 앞의 세 문장(맥락 문장)과 마지막 문장(검사 문장) 간의 연결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7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부자연스럽다 - 7: 매우 자연스럽다)로 평가하도록 지시받았다.

문장판단과제가 종료된 후에는, 참가자 집단의 영어실력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어휘 실력 평가가 진행되었다. 어휘 실력 평가는 미국 SAT 시험을 주관하는 CollegeBoard의 공식 홈페이지(<https://sat.collegeboard.org/practice>)에서 확인 가능한 English SAT 읽기 영역의 빈칸 채우기 과제 연습 문제 1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 중, 하 난이도를 고르게 반영하여 다섯 개의 보기 중 문장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공인영어성적, 영어권 거주 국가명, 거주 기간 및 거주 당시 나이, 영어 교육 시작 나이 및 영어 사교육 시작 연령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영어 학습 경험 관련 설문도 진행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사후 설명서가 제시되었다.

2.2. 실험결과

2.2.1. 문장 판단 과제 결과 분석

먼저, 문장 판단 과제에 대한 사전 분석(preliminary analysis) 결과, 참가자들의 나이 및 성별과 조건별 역균형화를 위한 4가지 설문조사 유형은 검사 문장의 주어 연속성 및 주어 언급 방식과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F_s < 1$.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참가자의 나이, 성별 및 설문조사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분석하였다.

검사 문장에서 맥락 문장으로부터 주어가 연속되는지 여부(연속, 불연속)와 주어의 언급 방식(명사구 반복, 대명사)을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검사 문장에 대한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각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마지막 문장인 검사 문장에 대한 평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어 연속성 및 주어 언급 형태에 따른 검사 문장의 평정치에 대한 조건 별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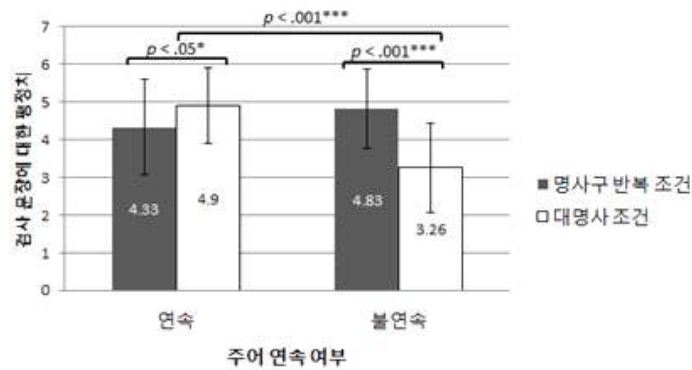
주어연속성 주어언급방식	주어 연속	주어 불연속	조건 별 평균
명사구 반복 조건	4.33(1.27)	4.83(1.05)	4.58(1.18)
대명사 조건	4.90(1.01)	3.26(1.18)	4.08(1.37)
조건 별 평균	4.62(1.17)	4.05(1.36)	

그 결과, 한국인 고급 영어 학습자들의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는 참가자 별 분석³⁾과 문항 별 분석⁴⁾에서 모두 유의미했다($F(1,17) = 7.34, p = .014$; $F(2,15) = 12.88, p = .003$). 이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도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이전 맥락 문장들로부터 연속될 때(주어 연속-반복명사구 조건과 주어 연속-대명사 조건)가, 이전 맥락 문장들과 다른 주어가 사용될 때(주어 불연속 반복명사구 조건과 주어 불연속-대명사 조건)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함을 보여준다.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 역시 참가자별 분석과 문항별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F(1,17) = 6.92, p = .016$; $F(2,15) = 11.85, p = .004$). 즉,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명사구 형태로 반복될 때(주어 연속-반복명사구 조건과 주어 불연속-반복명사구 조건)를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대명사로 등장했을 때 보다(주어 연속-대명사 조건과 주어 불연속-대명사 조건)보다 좀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함을 보여준다.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이원 상호작용은 참가자별 분석, 문항별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했다($F(1,17) = 43.09, p = .000$; $F(2,15) = 16.51, p = .001$). 이처럼 한국인 성인 영어 학습자들은 단순히 주어의 연속성 또는 주어 언급 방식을 중 한 가지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주어가 연속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명사 주어로 언급하는 것을 선호하며, 주어가 이전 맥락 문장들과 다른 대상을 주어로 가질 경우 명사구 형태로 반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3) 참가자 별 분석(by subjects): 개별 참가자의 입장에서 주어 연속성(2)과 주어 언급 방식(2)에 따른 네 조건(2x2)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통계치: $F1, t1$).

4) 문항 별 분석(by items): 각 이야기의 입장에서 주어 연속성(2)과 주어 언급 방식(2)에 따른 네 조건(2x2)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이야기는 역균형화(counterbalance) 되는 과정에서 각 등장인물이 네 가지 설문지에 걸쳐 네 조건마다 등장하였다(통계치: $F2, t2$).

<그림 1> 한국인 성인 EFL 고급 학습자의 검사 문장에 대한
평정치(참가자 별 분석)



계획된 대비검정 결과, 참가자 별 분석에서 주어 연속 조건에서는 이전 문장의 주어가 대명사로 반복 되었을 때($M = 4.90$, $SD = 1.01$)를 주어가 명사구로 반복될 때($M = 4.33$, $SD = 1.27$)보다 유의미하게 더 자연스럽다고 평가하였다($t(20) = -2.43$, $p = .024$). 이처럼 연속된 주어의 언급 방식은 명사구를 반복하는 것 보다 대명사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은 문항별에서도 같은 경향성으로 나타났다($t(15) = -2.56$, $p = .022$). 반면 주어 불연속 조건에서는 주어가 명사구로 반복될 때($M = 4.83$, $SD = 1.05$)가 주어가 대명사로 반복될 때($M = 3.26$, $SD = 1.18$)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t(20) = 5.87$, $p = .000$, $t(15) = 4.46$, $p = .000$). 대명사로 실현된 주어는 주어가 네 문장에서 모두 한 대상으로 연속되었을 때가, 중간에 다른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평정되었다($t(20) = 6.75$, $p = .000$; $t(15) = 5.08$, $p = .003$). 이러한 주어 연속성의 효과는 주어가 명사구로 반복되었을 때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20) = -1.74$, $p = .097$; $t(15) = -1.76$, $p = .099$, <그림 1>).

2.2.2. 어휘 실력 평가 및 영어 학습 경험의 영향 검증

사후 분석으로, 어휘 실력 평가 및 영어 학습 경험 요인(예, 영어공인인증 성적,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 영어 학습 및 영어 사교육 시작 나이)을 참가자 간 집단을 중앙값 또는 평균을 기준으로 분할하였을 때도, 주어연속성과 주어언급방식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 각각의 주 효과가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미국 English SAT 읽기 영역의 문장 빈칸 채우기 과제 15 문항으로 측정된 참가자들의 어휘 실력 평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정답 개수는 10.6 개 ($SD = 2.30$ 개)로, 평균 정답률은 70.6%였다. IBM SPSS Statistics 21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평균을 기준으로 낮은 어휘 집단(10 명, 평균 9 개 정답)과 높은 어휘 집단(11 명, 평균 13 개 정답)으로 분할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낮은 어휘 집단에서는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6) = 1.73, p = .221$)와 주어 언급방식의 주 효과($F(1,6) = 1.76, p = .222$)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했다($F(1,6) = 13.88, p = .005$). 높은 어휘 집단에서는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7) = 4.33, p = .016$)와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F(1,7) = 3.67, p = .032$)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이원 상호작용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7) = 12.87, p = .000$). 따라서 낮은 어휘 집단과 높은 어휘 집단 모두에서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영어 공인 인증 성적(예, iBT TOEFL, TOEIC, TEPS)은 한국 텡스 관리 위원회(2011)에서 제공하는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 을 참고하여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응시한 TOEIC 성적으로 변환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 참가자 집단의 공인영어성적점수는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두 명을 제외하고 평균 TOEIC 950.53 점(범위: 828 점 이상 990 점 이하)이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성인 고급 영어학습자였으나, 참가자들의 공인영어성적이 주어연속성 및 주어 언급 방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실험 이후 다음과 같이 사후분석을 진행하였다. 공인 영어 성적이 있는 19 명의 참가자들을 TOEIC 하위 집단(9 명, 평균 921 점)과 TOEIC 상위 집단(10 명, 평균 977 점)의 집단으로 데이터 분할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OEIC 하위 집단에서는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5) < 1, p = .50$)와 주어 언급방식의 주 효과($F(1,5) < 1, p = .53$)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방식의 이원상호작용은 유의

미하였다($F(1,5) = 14.57, p = .005$). TOEIC 상위 집단의 경우,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6) = 12.93, p = .006$)와 주어 언급방식의 주 효과($F(1,6) = 10.06, p = .011$)가 모두 유의미했으며,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했다($F(1,6) = 29.86, p = .000$). 따라서 본 연구의 고급 영어 학습자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TOEIC 점수가 상위인 집단과 하위인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방식에 대한 이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영어권 해외 거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참가자들 중 10 명은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이 없었으며, 나머지 참가자 11 명은 거주 경험 기간을 거주 형태에 따라 집단을 나눈 경우 단기 방문 형태의 경우 평균 6 개월(5 명), 장기 거주 형태의 경우 26.7 개월(6 명)의 기간을 보이며 총 평균 17 개월($SD = 15.65$ 개월)의 거주 경험을 보고하였다. 11 명의 해외 거주 시작 나이는 평균 15.9 세($SD = 6.28$ 세)였으며, 거주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1 명), 미국(7 명), 캐나다(2 명), 남아프리카공화국(1 명, 공용어에 영어 포함)이었다. 해외 거주 경험 여부에 따라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21 명의 집단을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10 명)과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11 명)으로 분할하였다.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6) = 5.09, p = .051$)는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F(1,6) = 3.20, p = .107$)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했다($F(1,6) = 24.43, p = .001$).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7) = 2.55, p = .141$)와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F(1,7) = 3.42, p = .09$)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이원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7) = 17.78, p = .002$). 따라서 참가자들은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 여부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이원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해외 거주 경험의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영어 학습 시작 연령은 평균 만 7.43 세($SD = 1.69$)였다. 영어 유치원에 다닌 학생은 없었으며 첫 영어 학습 시기는 유치원 이전(만 4 세, 1 명), 한글 유치원(만 5 세, 4 명), 초등 1 학년(만 7 세, 4 명), 초등 2 학년(만 8 세, 4 명), 초등 3 학년(만 9 세, 8 명)이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른 학습자 집단(11 명)과 늦은 학습자 집단(10 명)으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른 학습자 집단은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7) = 23.18, p = .001$)는 유의미하였으나,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F(1,7) = 3.46,$

$p = .09$)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전체 참가자 집단처럼 유의미하였다($F(1,7) = 21.25, p = .001$). 늦은 학습자 집단의 경우,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6) = .88, p = .373$)와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F(1,6) = 3.12, p = .11$)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이원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F(1,7) = 20.07, p = .002$). 주어 연속성에 대한 민감성은 더 이른 시기에 영어를 배운 학습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는 어떠한 주어 언급 방식과 결합되는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부수적으로, 영어 사교육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이른 시기부터 영어 몰입형 환경(English Immersed Environment)을 형성해주거나 영어 학습 과정을 압축적인 형태로 제시하므로 영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학습 시기와 더불어, 영어 공교육 이외의 추가적인 영어 학습 형태인 사교육의 유무와 그 시작 연령을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의 사교육 시작 연령은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한 3명을 제외하고 평균 만 10.22 세($SD = 3.12$ 세)였으며, 유치원 이전(만 6 세, 1 명), 초등학교 저학년(만 7~9 세, 7 명), 초등학교 고학년(만 10~12 세, 7 명), 중학교 시기(만 13~15 세, 1 명), 고등학교 시기(만 16~18 세, 2 명)이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18 명의 참가자들을 이른 사교육 집단(8 명, 평균 만 7.78 세에 시작)과 늦은 사교육 집단(10 명, 평균 만 12.67 세에 시작)으로 나누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른 사교육 집단은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4) = 2.68, p = .14$)와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F(1,4) = 1.31, p = .29$)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원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F(1,4) = 13.73, p = .006$). 늦은 사교육 집단의 경우,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6) = 3.04, p = .11$)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F(1,6) = 16.20, p = .004$)와 주어 연속성 및 주어언급 방식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6) = 15.49, p = .004$).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한 3 명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F(1,1) = 9.18, p = .09$)와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F(1,1) = .006, p = .94$)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원 상호작용만큼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1) = 44.03, p = .022$). 따라서 한국인 고급 영어 학습자들의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방식의 상호작용은 사교육의 여부 및 사교육의 시기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2.3. 정리와 해석

본 연구의 한국 대학생 고급 영어 학습자들은 담화 맥락에서의 대명사 활용에 있어 영어 모국어 화자들과 비슷한 경향성의 언어적 직관을 보였다. 즉, 참가자들은 이전 문장의 주어가 다음 문장에서도 주어로 연속되는 경우, 주어가 명사구의 형태로 그대로 반복되는 것 보다 대명사로 대체되는 것을 더 자연스럽다고 지각함으로써,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자가 읽기 시간 측정 과제(Gordon et al., 1993) 및 반응시간 측정 과제(Hudson-D'Zmura와 Tanenhaus, 1998)에서 보였던 반복이름벌칙과 유사한 형태의 대명사 이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성인 고급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모국어 화자가 보인 주어 연속성의 민감성과 유사한 이해를 보였으며, 주어가 연속되지 않아서 문장의 초점이 바뀌는 경우, 주어를 대명사 보다는 명사구의 형태로 반복함으로써, 담화특출성 이론(Gordon and Hendrick, 1997, 1998)에서 제시하듯 지시체의 형태(명사구 반복, 대명사화)가 문법적 역할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담화 맥락에서의 대명사 이해에 있어서는 한국 고급 영어 학습자들도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직관적 이해를 후천적으로 비슷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판단 과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영어 어휘 실력 평가, 영어 공인인증 성적 점수 및 영어 학습 경험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담화맥락에서의 대명사 이해에 있어서 참가자들이 보인 주어 연속성의 주 효과 및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는 집단 별로 조금 차이가 나타났으나,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상호작용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참가자들은 주어가 연속할 때와 주어가 연속하지 않을 때에 주어의 표현 방식(명사구 반복, 대명사)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담화 맥락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게 지각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원어민 참가자들의 담화 맥락 내에서의 대명사 이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Hudson-D'Zmura and Tanenhaus, 1998; Song and Fisher, 2005, 2007). 즉, 참가자들의 어휘 수준과 영어 공인인증 성적의 높고 낮음, 해외 거주 경험 여부, 영어 학습 나이 및 사교육 여부는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을 조작한 본 연구에서는 대명사 이해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영어 학습 경험 요인에 따라 분할된 하위 집단에서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참가자 집단의 표본 크기 및 분석 단계에서의 하위 집단 설정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는 21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조금 더 큰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보인 경향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담화 맥락에서의 대명사 이해라는 주제에 대하여 한국인 EFL 고급 성인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탐색적으로 접근한 연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장 판단 과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어 학습 경험 요인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받았으므로, 개인적 요인들은 실험 후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개인적 영어 학습 경험 요인들에 따른 하위 집단들에서 모두 나타난 바 있다. 각 하위 집단 간에 나타난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의 주 효과의 차이는, 개인적 요인에 따라 집단별로 참가자를 표집 하는 참가자 간 설계 형태의 연구 및 더 큰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처럼 영어 모국어 화자와 비슷하게 나타난 경향성은, 높은 영어 실력을 지닌 한국인 EFL 고급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의진 등(2014)은 본 연구에서 알아보았던 주어 연속성과 주어 언급 방식에 대하여,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들과 비슷한 대명사 이해 양상을 보이는 지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들은 본 연구의 영어 원어민 화자들과 비슷한 이해 양상을 보였지만,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주어 연속 여부에 무관하게 대명사 주어 문장을 명사구 반복 주어 문장보다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자들은 프랑스어 연구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중급(예, B1)의 프랑스어 DELF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미루어보아 중/고급학습자 집단인 것으로 유추한 바 있다. 프랑스어 중급 학습자들은 어휘 및 문법적 지식에 비해 암묵적인 대명사 이해가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과 조금 다르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의 고급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모국어 화자의 대명사 이해 양상과 상당히 비슷한 이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안의진 등(2014)의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연구 결과는 언어 숙달도에 따라 암묵적인 대명사 이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참가자 집단의 표본 크기를 키워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 집단을 비교해 본다면, 담화 맥락상의 대명사 이해의 발달적 경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변인들로 완전히 설명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에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보였던 언어적 직관에 대한 후천적 학

습의 가능성을 한국인 성인 EFL 고급 학습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간단한 문장 판단 과제를 통해 한국인 고급 영어 학습자들의 담화 맥락에서의 대명사 이해 양상을 보여주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자들의 실시간 언어 처리 양상(online language processing)을 반응시간 측정 과제 또는 시선추적(eye-tracking) 실험 등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Trenkic, Mirkovic and Altmann(2014)은 영어를 제 2언어로 학습한 중국인 중급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하여 영어 지시어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를 알아본 결과, 중국인들도 영어 모국어 화자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관사(*a*와 *the*)에 따라 달라지는 지시어에 대하여 모국어 화자들과 비슷한 형태의 직관적 이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이해 양상은 공인 영어 시험(예, TOEIC, iBT TOEFL) 등 외현적인 오프라인 측정 방식(off-line measures)에서는 검증되지 못했던 외국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이었으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들도 영어 관사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가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대하여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도 TOEIC 시험의 청해 및 독해 점수(지순정, 이상도, 2009) 또는 어휘 지식 평가(신창원, 2011) 등 외현적인 영어 능력 평가 방식을 활용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한국인의 영어 처리 과정을 암묵적인 실시간 측정 방식(on-line measures)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대명사 이해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지지 않고, 검사 시행과 가짜 시행이 섞인 심리학 실험 구조를 활용하여 각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연스러움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암묵적 언어 처리 양상을 알아본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성인 EFL 고급 영어 학습자들의 대명사 이해에 대한 직관을 이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시간 언어 추적 장치 등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영어 모국어 화자의 실시간 이해 양상과 비교해봄으로써 더 자세히 언어적 직관의 산출 형태를 탐색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해 본다.

3.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성인 EFL 고급 학습자들이 담화 맥락에서의 영어 대명사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양상이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언어적 직관과 비슷한지를 알아보았다. 한국인 대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담화

맥락에서 문장 간 연결의 표지가 되는 주어의 표현 형태(대명사 또는 반복명사구)와 주어 연속성(문장 간 주어가 연속 또는 불연속)에 따른 네 가지 실험 조건에서 네 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읽고 맥락 문장들과 마지막 검사 문장 간의 연결의 자연스러움을 평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 EFL 고급 학습자들은 이전 문장의 주어가 연속될 때는 명사구 반복보다는 대명사 주어를, 대명사 주어에 대해서는 이전 문장의 목적어보다 주어가 대명사화 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담화 처리에 대한 언어적 직관을 한국인 EFL 고급 학습자들도 후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영어 원어민 화자가 일상에서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영어 몰입형 환경에서 습득한 모국어에 대한 직관을, 비몰입형 영어 환경의 한국인 영어 고급 학습자들도 후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어 제2언어 또는 외국어의 암묵적인 문법적 직관 습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본 연구는 담화 맥락의 암묵적 이해를 문장 판단 과제로 알아보았으며, 추후 연구로는 반응시간 측정 과제 및 시선추적 실험 등을 통한 한국 성인 EFL 고급 학습자의 실시간 언어처리 양상 탐색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어로 학습한 영어에 대하여 담화 맥락에서의 단서 활용에 대한 암묵적 이해가 어떤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학습되는지에 대한 발달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대명사 해석, 담화 처리, 외국어 학습, 대응어 복원, 담화 특출성, 중심화 이론

참고문헌

- 김수연, 안동환(Kim, S. Y. and D. H. An). 2014.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 문법성 판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f Korean L2 Learners' Grammaticality Judgements of Unaccusative and Unergative Constructions). 『언어과학』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1.3, 1-22.
- 신창원(Shin, C. W.). 2011.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능력과 어휘지식간의 상관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EFL Learners' Proficiency and their Vocabulary Knowledge). 『언어과학』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8.3, 47-66.
- 지순정, 이상도(Jee, S. J. and S. D. Lee). 2009. 토익 점수분석에 따른 청해력과

- 독해력의 상관관계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through an Analysis of TOEIC Score). 『언어과학』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6.1, 111-128.
- 안의진, 송현주, 김민주, 임재호(Ahn, E. J., H. J. Song, M. J. Kim and J. H. Leem). 2014.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의 프랑스어 담화 이해와 대명사 해석 연구 (Pronoun Resolution in French Discourse by Korean-learners of French). 『인지과학』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5.4, 317-433.
- 한국 텡스 관리 위원회. 2011.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 http://www.teps.or.kr/Teps/Public/conversion_table.aspx.
- © 2015 The CollegeBoard. 2015. Practice Questions and Review. Reading, Sentence Completion. <https://sat.collegeboard.org/practice>.
- Baek, S. 2014. Online Processing of English Articles and Information Structure by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0(2), 3-27.
- Brennan, S. E. 1995. Centering Attention in Discours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0, 137-167.
- Brennan, S. E., M. W. Friedman and C. J. Pollard. 1987. A Centering Approach to Pronouns.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55-162.
- Gernsbacher, M. A. 1989. Mechanisms that Improve Referential Access, *Cognition* 32, 99-156.
- Gernsbacher, M. A. and D. J. Hargreaves. 1988. Accessing Sentence Participants: The Advantage of First Men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7, 699-717.
- Gordon, P. C., B. J. Grosz. and L. A. Gilliom. 1993. Pronouns, Names and the Centering of Attention in Discourse. *Cognitive Science* 17, 311-347.
- Gordon, P. C. and R. Hendrick, 1997. Intuitive Knowledge of Linguistic Coreference. *Cognition* 62(3), 325-370.
- Gordon, P. C. and R. Hendrick, 1998. The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Coreference in Discourse. *Cognitive Science* 22(4), 389-424.
- Grosz, B. J., A. K. Joshi and S. Weinstein. 1995. Centering -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21(2), 203-225.
- Hudson-D'Zmura S. and M. K. Tanenhaus. 1998. Assigning Antecedents to Ambiguous Pronouns: The Role of the Center of Attention as the

- Default Assignment. In Walker, M., A. Joshi, and E. Prince (eds.),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Oxford: Clarendon. 199-226.
- Kim, E., S. Montrul and J. Yoon. 2014. The On-line Processing of Binding Princip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vidence from Eye Tracking. *Applied Psycholinguistics*, 1-58.
- Megherbi, H. and M. F. Ehrlich. 2009. The On-line Interpretation of Pronouns and Repeated Names in Seven-year-old Children. *Current Psychology Letters* 25(2), 20-29.
- Prince, E. F.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Cole, P.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Roberts, L., M. Gullberg and P. Indefrey. 2008. Online Pronoun Resolution in L2 Discourse: L1 Influence and General Learner Effect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0, 333-357.
- Song, H. J. and C. Fisher. 2007. Discourse Prominence Effects on 2.5-year-old Children's Interpretation of Pronouns. *Lingua* 117, 1959-1987.
- Song, H. J. and C. Fisher. 2005. Who's "She"? Discourse Prominence Influences Preschoolers' Comprehension of Pronouns. *Memory and Language* 52, 29-57.
- Trenkic, D., J. Mirkovic and G. T. M. Altmann. 2014. Real-time Grammar Processing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Constructions Unique to the Second Language.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7(2), 237-257.
- Webber, B. L. 1979. *A Formal Approach to Discourse Anaphora*. New York: Garland Press.
- Wykes, T. 1983. The Role of Inferences in Children's Comprehension of Pronou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5, 180-193.

김민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유억겸기념관 315호 심리학과
전화번호: 02-2123-4887
전자우편: rubyminju@gmail.com

안의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418호 불어불문학과
전화번호: 02-2123-2345
전자우편: angrsm@naver.com

송현주 (교신저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609호 심리학과
전화번호: 02-2123-2449
전자우편: hsong@yonsei.ac.kr

투고일자: 2015. 06. 30
수정일자: 2015. 08. 10
확정일자: 2015. 08. 17